

동국대 로터스관 기부 잇달아

생활풍수동문 · 대운사 각각 2천만원

동국대 로터스관 불사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회장 도심)가 출범을 기념해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과 서병열 수석부회장은 5월 3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로터스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과 '다라니회 모임' 신도들이 같은 날 "불교 ·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주석 스님과 법계사 주지 묘련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이사인 탤런트 견미리 씨 등이 참석했다.

주석 스님은 "다라니회 모임에서 매주 걷는 회비를 1년에 한 번씩 좋은 일에 회향하고 있다. 올해는 종립 동국대 인재양성에 활용하는데 도반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맞아 수계법회

광동학원 법인 산하 3개 학교 참여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로 거듭났다.

광동학원은 5월 8일 법인 산하 3개 학교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광동중학교와 광동고등학교의 수계식은 교내 강당서 학생 1300여 명과 교직원, 학부모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수계법사로, 봉선사 사중 스님들이 연비사로 나섰다.

앞서 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에서는 오전 10시 학생 630명과 교직원, 학부모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식이 열렸다. 수계법사로 미륵암 주지 혜공 스님이, 연비사로 회룡사 사중 스님이 참여했다.

이날 3개 학교의 수계식을 위해 광동학원 설립 본찰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관)와 회룡사(주지 성원), 석남사(주지 능인)는 떡과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수계첩과 고급 합장주를 수계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올바른 역사의식 청소년에 전해요"

Interview

태극기디자인공모전 여는 능화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28일까지 공모전 개최

8월 9일부터는 우표전시회

"근현대 불교계 활동 조명"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불교계를 대표해 다양한 역사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으로 제1회 태극기문양 디자인공모대전을 펼치는 인천시박물관협의회장 능화 스님(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은 5월 8일 청소년 역사인식 고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능화 스님은 지난 2월 13일 제12회 정기총회서 사단법인 인천시박물관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후 능화 스님은 2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협의회 소속 29개 회원 박물관과 함께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 을 펼치고 있다. 특히 3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1회 태극기문양 디자인공모대전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다.

능화 스님은 "이번 사업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지역 3.1운동 관련행사에 참여, 인천이 일본에 대항해 3.1운동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리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사업은 태극기문양디자인전국공모전과 함께 태극기 우표전시회, 역사유적탐방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태극기 우표전시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3차 전시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주제로 만든 우표 등이 선보인다.

또 9월까지 총 6차에 걸친 역사유적탐방이 이어진다. 1일간 황어장터, 길직교회, 강화역사박물관을 탐방하는 제1코스와 1박2일간 덕적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2코스, 1일간 황어장터와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는 제3코스가 준비돼 있다.

능화 스님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선조들이 지켜온 이 나라의 역사를 직접 보고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능화 스님은 그동안 한국전통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서왔다. 2002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 2008년 한국박물관협회 범패박물관을 개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부회장으로 기관 유대관계에도 힘썼다.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기도 한 능화 스님은 매년 현충일에 순국선열 추모 현충재를 펼쳤다. 불교의 호국정신과 우리 전통문화의 접점을 모색한 결과다.

스님은 "만해 스님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시기 불교는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다. 불교로만 보아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역사탐방, 순례프로그램과 청소년 역사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현대 불교계의 활동을 알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올해는 인천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한 해로 만들자"며 대중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는 2007년에 설립돼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총 29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바라밀 행자와 복지 불국토 건립"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

정오 스님 5월 10일 취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평등복지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탄생게를 읊으시며 하늘 아래와 땅 위 나 홀로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 개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밝히신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로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5월 10일 장안사 설법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오 스님은 앞으로의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동주는 설립 20주년 기념식도 함께 봉행했다.

정오 스님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세상, 복지 불국토를 위해 바라밀 행자들을 모집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동주는 108후원회, 33후원회, 특별후원회로 나눠 '향기로운 인연, 향기로운 동행'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오 스님은 후원회 구성에 대해 "복지는 바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복지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일은 결국 나의 마음을 보람되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복 터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세계일화, 부처님 세상 만들기' 라는 목표 아래 1999년 벽파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벽파 스님은 정오 스님의 은사다. 동주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장애인복지 등을 담당하며 부산연제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동주의 집(학대피해아동쉼터),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오 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하나 돼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천과제로 △여래장사상을 통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육바라밀 수행을 통한 법인 역량강화 △복지공동체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등을 꼽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효성사 가르침 되새기다

경주 분황사, 1333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



경주 불국사 말사 분황사(주지 현광)는 5월 3일 경내에서 1333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주지 종우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현광 스님은 "원효성사의 일심사상, 화쟁사상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살겠다"며 "사부대중은 성사님의 가피로 성불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산대첩 불 밝힌 연등"

통영불교연합회,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는 5월 7일 한산대첩광장에서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렬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행사에는 회장 종묵 스님과 묵원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통영불교연합회는 이명규 통영부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어르신 만수무강 하세요"

부산 효심사 무료급식소, 어버이날 선물 증정



부산 효심사(주지 효문)는 5월 8일 효심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손수레 150개를 기증했다. 손수레는 효심사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조광심 불자가 희사한 것으로 주지 효문 스님의 나눔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자 기부했다. 조광심 불자는 효심사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 및 화장품 등을 꾸준히 나누며 보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본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전화 : 1577-1016(방송국) 1670-2010 팩스 : 054-571-7498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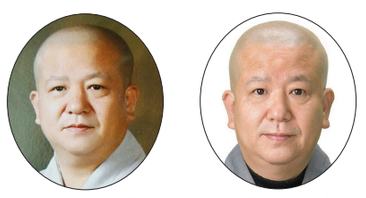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